출하 앞둔 나주 한라봉

28일 나주시 산포면 유촌마을 이정석씨가 설 대목에 출하할 한라봉을 살펴보고 있다. 한라봉은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수확돼 판매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원평가 '낙제' 교사 2197명

'생활지도' 최저점…학생지도·관리 헛점

올해 2년째 시행된 초·중·고 교원평가에서 교사 2197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에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후보가 됐다.

특히 교원평가에 참여한 학생·학부모들은 여러 평가항목 가운데 교사의 '생활지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겨 학교의 학생 지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장·교감도 마찬가지로 '교내 장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결과 및 내년 맞춤형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수 및 연구년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평가는 9~11월 전국의 초·중등·특수학교 1만1067개교에서 실시됐다.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전북교육청 소속 770개교는 제외됐다.

평가 결과(5점 만점)는 매우 우수(평균 4.5점 이상), 우수(3.5~4.5점), 보통(2.5~3.5점), 미흡(1.5~2.5점), 매우 미흡(1.0~1.5점) 등 5등급으로 매겼다.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연수 심의 대상자는 전체 38만2396명(참여대상 기준)의 0.5%인 2179명(장기연수대상자 359명, 단기연수대상자 1820명)으로 작년보다 1003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장기 연수 대상자는 359명, 단기연수대상자는 1820명이다. 일반 교사는 장기연수대상자 340명, 단기연수대상자 1820명이고 교장 및 교감은 장기대상자만 19명이다.

교과부는 교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시도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연수자를 확정한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장기 연수자가 된 교원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주관하는 집합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는 수업에서 배제돼 교단에 설 수 없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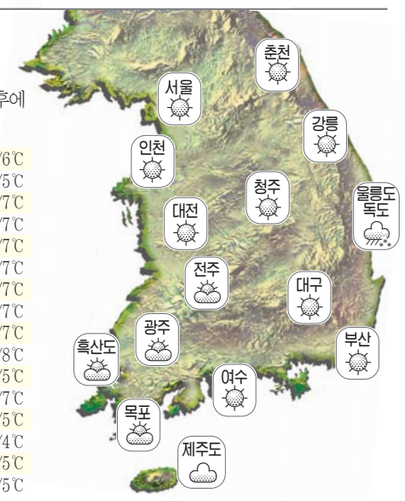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0분 해짐 17시 28분 / 달뜸 10시 27분 달짐 22시 18분

잿빛하늘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다.

광 주	구름많음	-1/6℃
목 포	구름많음	0/5℃
여 수	구름조금	0/7℃
나 주	구름많음	-5/7℃
완 도	구름많음	-1/7℃
구 례	구름많음	-4/7℃
강 진	구름많음	-2/7℃
해 남	구름많음	-3/7℃
장 흥	구름많음	3/7℃
순 천	구름많음	-1/8℃
영 광	구름많음	-3/5℃
진 도	구름많음	-1/7℃
전 주	구름많음	-2/5℃
군 산	구름많음	-2/4℃
남 원	구름많음	-5/5℃
흑산도	구름많음	-4/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4:54 17:28	10:04 22:42
여수	12:05 --:--	05:34 18: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금)	31(토)	1/1(일)	2(월)	3(화)	4(수)
날 씨						
최저/최고	-4/6	-2/6	-1/5	-2/7	-2/6	-2/5

'無보험·無공제' 불안한 여행객들

광주 여행업체 21곳 경영난에 미가입…사고땐 보상길 막혀

경기불황으로 여행업계가 경영난을 겪고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사들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한해 보험·공제 미가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동구 90곳 중 8곳 ▲서구 61곳 중 10곳 ▲북구 54곳 중 2곳 ▲광산구 22곳 중 1곳 등으로 전체 259곳의 여행사 가운데 21곳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4차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동구의 K여행사는 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6개월 가까이 영업을 해오다가 수차례의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도 불응해 영업허가가 최종 취소됐으며, 서구의 P여행사도 최근 보험·공제 미가입으로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

보증 보험이나 공제는 1년에 25만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영세한 여행사들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여행객들이 급감하면서 이마저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이 보험·공제를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이용하다가 여행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영세한 여행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여행 상품을 계약한 뒤 여행사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할 경우 보험과 공제마저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행 상품과 여행사를 선택할 때는 '공제영업보증' 또는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유무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광주시관광협회 김영준 부장은 "최근 들어 타지역에서도 보험·공제를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의 경우 영세한 여행사들이 많아서 일부 여행사들은 보험·공제 비용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매곡동 이마트' 검찰 수사 촉구

입점저지 시민대책위, 불법건축허가 관련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매곡동 이마트 불법건축허가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대형유통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불법건축허가에 관여한 건축사 고발 수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지난 7월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북구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마트 측이 용도지역분류, 연결통로,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공작물 등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북구청은 광주시의 권고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건축사 고발, 관계 공무원 징계 등을 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명백한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마트는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소송을 통해 불법시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북구청이 해당 건축사를 고발한 지 5개월이 됐으나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무책임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도교육감 비서실장 김대중씨

전남도교육청은 28일 공석인 교육감 비서실장에 김대중(51) 전 목포시의회 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기도 한 김 실장은 목포 YMCA 이사를 거쳐 목포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3선을 지냈으며 최연소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의 매제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곡성출신으로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목포 정명여고 교사로 재직하다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인' 서울대 출범

서울대가 28일 법인 등기 신청을 마치고 법인으로 전환했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과 이사·감사 명단 등 법인 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도 발효돼 이날부터 서울대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 조직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 및 재정의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